

지방자치·종합

자치단체장 정치권 줄서기 극심

민선5기 중간평가

④ 되풀이 된 구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과의 '참여와 소통'을 내걸고 출발했던 민선 5기도 여전히 구태(舊態)를 들플렸다. 공직선거법과 각종 불·탈법 혐의로 일부 자치단체장을 이 구속되거나 줄줄이 법정에 서는가 하면 공직자들의 비리도 여전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권 줄서기와 측근 인사 문제, 전직 단체장 정책 뒤집기도 되풀이됐다.

◇단체장, 정치권 '줄서기'=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개입은 도(度)를 넘어섰다. 사조직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아직도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유태명 동구청장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과정에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번개모임 등을 통해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 발행 소식지를 통해 특정 후보의

측근 인사 문제·사조직 득세 오점으로

단체장 바뀌면 사업 줄줄이 없던일로

업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통합당 고현·보성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도 일부 지역 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이 2년 후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만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특정후보에 '줄서기'를 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

◇단체장 및 측근 버리, 공직자 기강 해이=서기동 구례군수는 민선 5기 출발과 함께 버리 혐의로 퇴출려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 군수는 승진인사와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구례군 주민들이 서 군수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

단체장 측근들의 비리도 잇따라 불거졌다. 허남석 광성군수 전 비서실

장이 관급자재 납품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강문태 광주시장의 한 측근도 광주시청 개청 이후 최대 '뇌물 커넥션'으로 기록된 총인 시설 입찰비리와 관련된 불법 녹취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공직기강 해이 정도는 도(度)를 넘어서기도 했다.

광주시의 총인 시설 입찰비리 사건으로 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전남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련 토착비리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신안군 공무원들은 해수단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했으며 부실한 준공처리로 담수화 사업도 영망이 뛴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시의원과 관계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나주시와 구례군은 관급자재를 생산하지도 못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가 하면 구매계약업체와 실제 납품업체가 다른 황당한 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조직 대신 사조직 '득세'=단체장의 사조직인 측근들의 득세도 민선

5기 상반기의 오점으로 남았다.

강문태 광주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계약직 나급에서 1년 만에 가급으로 승진하면서 시청 내 공무원들의 반감을 샀고, 감사원에 지적당하기도 했다. 광주시청 공무원 노조는 이례적으로 시장의 측근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사조직이 득세하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한번 찍히면 임기 동안 '변방'만 떠도는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직 단체장 정책 뒤집기=일부 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의 정책을 뒤집으면서 지역민에게 혼란을 주는가 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순군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치유를 위한 음식인 '힐링푸드'(healing food)를 태마로 대표축제를 바꿨다. 화순군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대표축제로 화순운주축제→화순 고인돌축제→화순 풍류문화축제→화순 고인돌축제→화순 풍류문화축제 등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꿨다. 함평군도 최근 나비 이미지를 형상화해 조성한 가로등을 '황소'로 바꿔 설치하는 등 전임 단체장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나비' 브랜드를 지워가고 있다.

/최권길기자 cki@kwangju.co.kr

28일부터 입장권 추가 인하

기존 구입자 차액 환불키로



여수 세계 박람회(8월 12일까지)
조직위가 입장권을 추가 할인하는 등 대내외적인 관람객 유치에 나섰다.

전체 전시 기간 중
절반 가량이 지난지난만 관람객이 적어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놨다.

◇개장 시간 30분 앞당겨=박람회 조직위는 27일 박람회 후반기를 맞아 관람객 편의 개선 사항을 종합 발표했다.

먼저, 관람객이 여수 도심을 관광할 수 있도록 박람회 개장시간을 기존의 오전 9시~밤 11시에서 오전 8시30분~밤 10시30분으로 각각 30분씩 앞당겼다. 토·일·공휴일은 오전 8시~밤 10시30분까지 개장한다. 야간입장권 입장시간도 이전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5시 이후로 1시간간 앞당겨졌다.

가장 인기 끌고 있는 빅오쇼의 공연 시작도 밤 9시30분에서 8시50분으로 40분 앞당겼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빅오쇼 공연을 2회로 늘려 더 많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직위는 평일과 일요일에도 관람객이 많이 몰릴 경우 탄력적으로 공연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아쿠아리움 입장장을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람객을 위해 '입체영상 아쿠아리움'도 운영 중이다. '입체영상 아쿠아리움'은 수중촬영 전문가들이 수일에 걸쳐 죄고의 모습을 수영하는 모습, 실제 관람시에 보기 어려운 벨루가가 다가오는 모습, 바다거북의 유령 모습도 손에 잡힐 듯이 볼 수 있다.

한편 수도권 관람객의 당일 방문을 위해 엑스포역을 출발하는 KTX 막차 시간도 오는 7월 10일부터 10분 늦춰져, 밤 9시에 출발하게 된다.

◇입장권 추가 인하=박람회 조직위는 이날 모든 학생과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에 대한 입장료도 대폭 인하했다. 조직위는 지난 22일 학생 등에 대한 단체 요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관람객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경로대상자에 대한 입장료도 대폭 인하했다. 조직위는 지난 22일 학생 등에 대한 단체 요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관람객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 입장권 가격을 1만 원(개인), 5000 원(단체)으로 각각 내렸다. 또 '8월 10~12일' 예정되어 있던 특별일 제도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별일 입장권은 폐지된다.

특별권, 2일권, 3일권 중 청소년, 어린이, 경로권도 보통권 가격 할인에 따라 별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했다. 이번 가격 인하는 28일부터 적용된다.

↑ 가격 할인된 권종의 입장권을 이미 구입한 경우 할인에 따른 차액도 환급해준다. 환불절차는 홈페이지(www.expo2012.kr)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개장 시간 30분·빅오쇼 공연 앞당겨

■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 종류 및 요금변경

구분	여행구분	요금	비고
보통권	성인	33,000	
	청소년/대학생	10,000	· 평일, 주말 관계없이 개별 입장 가능
	어린이/경로	10,000	
보통권 디啷구매	성인	31,000	· 30세 이상 구입
	청소년/대학생	10,000	· 토·일요일, 공휴일 이용 가능
	어린이/경로	10,000	· 개별 입장 가능
평일 단체권	성인	27,000	
	청소년	5,000	· 30세 이상 구입
	어린이/경로	5,000	· 단체로만 30명 이상 입장 가능
특별권	성인	18,000	· 국가유산자
	청소년	5,000	· 장애인 1~4급, 장애인 1~3급의 보호자 1인
	어린이/경로	5,000	· 기초생활수급자, 저상위계층 30명 이상 단체
2일권	성인	53,000	· 2일 연속으로만 입장 가능
	청소년	69,000	
	어린이/경로	120,000	· 4대 단위로 구매
3일권	성인	10,000	· 외국인 10인 이상
	어린이/경로	10,000	
	외국인	100,000	
4일권	성인	75,000	· 2012. 6. 28 ~ 8. 12 판매
	어린이/경로	50,000	
	외국인	20,000	
오후권	성인	7,000	· 오후 12:30 ~ 16:30, 입장 13:00 이후
	어린이/경로	7,000	
	일반	10,000	· 판매 16:30 ~ 20:00, 입장 17:00 이후
야간권	한인	5,000	· 할인대상 :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경로, 특별권 해당자
	외국인	10,000	

* 연령구분(2012. 5. 12. 기준) : 경로(65세이상), 성인(만 19세~64세), 청소년(만 13세~18세), 어린이(만 4세~12세), 4세미만 무료



'평화의 여행'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킨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일본 평화운동가들이 '평화의 여행'이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고 총동문회 '전두환 자료실' 폐쇄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대구공고 안에 들어선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 성격의 역사관을 논란 끝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공고 총동문회는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관이 학생들의 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문회는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

를 발굴해 역사관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순수한 역사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공고 총동문회는 지난달 7억 원을 들여 대구공고 안에 전 전 대통령의 흥상과 군복, 생활기록부 등을 전시한 역사관을 개관했다가 군사정변을 주도한 인물을 미화한 반역사적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오늘의 여수엑스포

이번 박람회는 전시관 입장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박람회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색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오늘은 지난 2003년 세계 저글링 대회에서 우승한 야비 레의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또 마녀와 거인 분장을 하고, 기업관 등지를 행진하는 스크립트퍼레이드도 놓치면 후회하는 공연이다.

△저길링 팀피언 야비 레(엑스포광장·오후 2시)

△스틸트파이어(이동대로·오전 10시 30분)

△국가의 날-중국(엑스포홀·오전 10시)

△전통한례 대현(전통마당·오전 11시 30분)

△스페스티벌-에이핑크, 허각(엑스포 특설무대 오후 8시)

△해상소 '꽃피는 바다'(해상무대·오후 2시)

△DJ댄스소(엑스포특설무대·밤 9시 30분)

△어제의 관람객 수=3만8050명(이하 27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238만204명

양산동 원룸용 토지 매각

【지 목】

【대 지】

【면 적】

692㎡ (209.7평)

【용도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

【추천 용도】

원룸, 단독주택 적합

【위 치】

동림 IC 5분거리

첨단2지구 인근

【특 징】

상가의 적합

토지로 활용도 우수

【매도가격】

170만원/평</p